

# 회심 준비론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적 견해

서창원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교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가? 이런 논쟁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언제나 기독교 교리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이 논쟁은 일단락된 것 같아도 심심찮게 잡음이 들린다. 그 이유는 이미 정립된 신학적 입장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동시에 인간의 자율권 혹은 자유의지의 기능에 대한 강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부른 지식 혹은 무지함이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확립된 사실을 간과하고 마치 지금 새롭게 발견한 신지식인양 과시욕에서 비롯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율적 인간의 위대성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룬 업적들은 눈부시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침범하는 과감성을 낳았다. 신의 영역에까지 드나들고자 한다. 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을 깊이 인정하는 개혁파 교회와 신적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을 앞세우는자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후자 그룹에 속한 자들도 일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로 인하여 자칫 구원의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린 것으로 오해를 사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무익한 논쟁을 낳게 한 일부 청교도들의 작품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에 대한 비평가들의 견해가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나 편견의 안경으로 바라본 산물인지는 본 논고에서 밝혀지겠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독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본 논고는 청교도들이 말한 회심 준비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개와 이 사상이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가 교리 표준문서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작금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합동측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전통적 개혁주의 교리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1.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떤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뭔가를 내놓고자 한다. 특히 학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학문 연구에 몰입하는 자들이 받는 유혹은 남이 다루지 않은 주제를 찾아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의 산물인 양 능숙하게 포장한다. 그러나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학자들의 이러저러한 주장들은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다룬 문제이며 크고 작은 종교적 토론의 현장에서 취급되어 정립된 것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뒤늦게 일부 청교도의 글을 발견하고서 공격하는 소재로 삼은 자들은 S 교수와 J 목사 등 한국의 신학자와 목사들 및 해외 학자들 몇몇이다. 해외 학자은 김효남 박사의 글에 의하면 대표적인 학자와 페리 밀러(Perry Miller)와 로이드 존스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으로 섬긴 알 티 켄달(R. T Kendall)박사 및

노먼 페티트(Norman Pettit)이다.<sup>1)</sup>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청교도들이 칼빈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여 알미니안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J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윌리엄 퍼킨즈(1558-1602)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행위언약을 도입하고 회심 준비론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그는 한 강의 동영상에서<sup>2)</sup> 그가 내세운 회심 준비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먼저 율법의 요구와 정죄 기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어 이신칭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②“복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먼저 율법으로 죄와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이론은 행위언약이라는 거짓 언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면서 퍼킨즈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준다’고 한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지어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사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회심 준비론은 이신칭의는 알았으나, 율법주의 신앙의 심각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청교도들의 전도 방식이다. 동시에 일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까지도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장로교 표준문서로 간주하고 받아 따르다고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며 심지어 앞서간 장로교회의 쟁쟁한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다 틀린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와 그의 주장을 동조하는 무리가 빚어내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 생각되어 우리가 믿고 있고 참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고귀한 문서들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면서 개혁신학의 현재 위치를 확고히 재확립하고자 한다.

## 1) 언약신학이란?

먼저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언약 신학이 알려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보자. 행위언약(*foedus operum*, 또는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한다)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올 자들(모든 인류)의 표상인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이다(롬 5:12-21).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을 지키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된 것이다. 행위언약(*foedus operum*)이라는 용어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가 1562년에 ‘창조의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잉글랜드 청교도 목사인 더들리 페너(Dudley Fenner, 1558-1587)가 1585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였다. 그 이후로 개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으나 웨스트민스터 총대 중 일부는 행위언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

1) 김효남, ‘개혁파 언약 사상과 청교도 준비교리’ 논문에서 소개한 이들의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Perry Miller, “Preparation for Salvation in Seventeenth-Century New Engl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4, no. 3 (1943); Perry Miller and Thomas H. Johnson, eds., *The Puritans*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3), 284; Norman Pettit, *The Heart Prepared* (New Haven, Con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R. T.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1997).

2) <http://naver.me/5K8ph8KM>, ‘회심 준비론이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라는 강의에서 발췌한 것임.

다.<sup>3)</sup> 행위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배격하는 율법주의적이라는 것 때문이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이나 기독교강요에서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일종의 수습 기간(a probationary period)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도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칼빈의 가르침에 그 개념에 대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레담 교수가 인용한 페스코(Fesko) 교수의 말을 보자: ‘순종에 대한 생명의 약속과 함께 아담에 대한 보호 관찰의 시기, 그리고 인류의 대표적 언약의 머리로서의 아담’이라는 문장이 그것이다.<sup>4)</sup>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에서도 이 생명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아닌데 훗날에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이것이 언약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호세아 6:7). 반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위언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언약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약속은 분명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약속의 효력은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순종함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훗날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원리와 다른 것이 아니다. 더구나 에덴동산에서 맺은 행위언약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것은 실지로 이 계명은 안식일 규정과 같이 시내산에서 제정된 도덕법 이전에 주어진 계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덕법은 구약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법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비록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도(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율법의 역할은 여전히 유용한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언급하였다.<sup>5)</sup> 첫째,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인간의 죄성을 밝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도록 만든다. 둘째, 악인과 불신자들을 억제시킨다. 셋째로 신자들을 가르치며 권고한다. 이처럼 율법은 불신자들의 회심과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다. 따라서 청교도들이 회심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접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 없는 교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 자체가 마치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력에 근거한 주장이다.

더구나 퍼킨스가 율법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고 한 언약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허위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8: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롬 10:5)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20),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

3) Letham, Robert, *The Westminster Assembly: Reading Its Theology in Historical Context,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Reformed Faith*,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9. 227-228. 감독주의를 선호한 토마스 Gataker(1574-1654)목사와 장로교도인 리처드 바인즈(Vines, 1600-1656)목사 및 프란시스 우드콕(Woodcock, 1614-1649) 목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상계서, 387.

5) 존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6-13항.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갈 3:12). **이처럼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살 수 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를 편의상 '행위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앞서 만들어진(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라. 3번 질문에 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60번과 61번 문답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령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sup>6)</sup>

‘행위언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백히 언급되는 최초의 신앙고백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보자: ‘원조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 율법에 반대되고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들에게 죄책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비참함과 함께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원히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다.’(WCF 6장 6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 낼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한 방편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다. 이 안에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생명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진 약속이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주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행위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다.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신다.’(WCF 7장 1항-3항).<sup>7)</sup> 대요리문답 22번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약출판사, 2004, 94-95.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공적 대표성을 지닌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자연적 출생으로 말미암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20번에서는 이를 생명 언약(Covenant of Li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창조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를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도록 임명해 주시고 땅의 과실을 먹는 자유를 주셨습니다...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으며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고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함께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생명 언약의 보증이었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제시한 약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에 비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레담 교수에 의하면 ‘아담이 그 약속을 성취해야 했던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이 그 조건이었다.<sup>8)</sup> 이것 때문에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보다 생명 언약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 존 머레이 교수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은혜의 주관적인 이행으로 이해하였다.<sup>9)</sup>

이러한 문장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아닌 무엇이 발견되고 있는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로마서 5:12절을 인용하면서 온 인류가 부패한 상태 속에 있음을 피력하였다.<sup>10)</sup> 그 부패는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발견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계시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그 계시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지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칼빈은 십계명을 강론하면서 율법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 결과를 지적하였다.<sup>11)</sup> 첫째는 ‘우리의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교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는커녕 그의 피조물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둘째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고서 그것들이 율법을 이행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것은 물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로써 반드시 우리 자신의 덕성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생긴다...그리하여 자신의 무기력하다는 증거들에 짓눌려 양심이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게로 돌아가며 그것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의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혐오가 우리 마음에 젖어 들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과 위협을 덧붙이셨다...그리하여 덕행에 대한 상급들이 쌓여있으므로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7) 번역은 필자의 것임.

8) Robert Letham,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 권태경, 채천석 역, 개혁주의신학사, 2014, 384.

9) John Murray, ‘The Adamic Administration’ i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Selected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49.

10)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독교강요* 2권 1장 원광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3, 303f 참고.

11) *기독교 강요*, 2권 8장 3항. 원광연 역, 453.

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명들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며, 동시에 계명들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임은 물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시는 것이다.’<sup>12)</sup> 이처럼 계명 순종에 대한 보상과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라는 약속은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이다. 율법과 은혜는 양극의 대립물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기능적인 구분이 있을 뿐이다. 이 두 역할에 대해 레담 교수는 이렇게 묘사한다: ‘은혜는 구성하고 율법은 규정한다. 언약은 총만하게 은혜롭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약속을 받고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한다’(WCF 19장 2항, 5-7항 참고).<sup>13)</sup>

## 2) 청교도들이 이해한 회심 준비론

이러한 언약 사상을 앞에서 언급한 일부 목사와 학자들 간에 서로 미세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종의 거래로 가정하고 구원 문제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몰아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성령 임재하심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를 경험하기 위하여 심령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한 주장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과 그런 체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후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배제하는 경향을 낳게 된다. 반면에 전자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만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능동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를 고백하게 한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필수적이다.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표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산출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엡 2:8). 그 선물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곧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이다(롬 10:17).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 스스로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 속에서 의지의 발로가 아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초자연적인 선물’인 것이다.<sup>14)</sup>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행위에 의한 준비개념을 어떻게 인정하겠는가? 이처럼 자발적 의지의 산물로 여기든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든 믿음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준비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지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견해는 김효남 박사가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택자를 정한 때에 준비시키시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피동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되, 그들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돋우셔서 그들이 이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일말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혹은 회심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신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율법 준수할 능력이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12) 기독교 강요, 2.8.3., 454.

13) 로버트 레담, 상계서, 395.

14) William Perkins, *Works*, London: John Legatt, 1626, vol. 1, 124.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상태에서 그 율법의 준수를 완전히 이루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소금 것처럼 고소해하시며 자신의 능력에 압도당하게 하는 고자세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여 무능력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강권하신다. 그 사랑에 녹아나지 않을 인간은 없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문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에 비로소 언약이 성립된다.’<sup>15)</sup> 여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만일 인간 스스로가 지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서실 이유가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가장 처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다.

정성우가 그의 책에서 인용한 폴 스몰리 교수의 글에 회심 준비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다:<sup>16)</sup> ‘준비교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 있다는 개념인데 그 방법은 죄인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 필요에 대해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을 알미니안 혹은 율법주의로 비난하는 자들의 주장이 ‘준비주의’로 오해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스몰리 교수는 ‘준비주의’는 구원받도록 준비되기 위해 죄인들이 스스로를 일정한 영적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는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의 율법주의 사상으로 말한다. 이는 청교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과 배치되는 사상이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법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양의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회심 준비주의라고 한다면 죄인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각성이 있어야 실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주장이다. 그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의 기록된 말씀, 특히 율법이다. 성령이 인간의 요구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며 기록된 말씀도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회심 준비론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각성시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청교도들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분리하여 가르치거나 선포될 것이 아니라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구약과 신약이 한권의 성경인 것과 같이 율법과 복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한다: ‘청교도 준비교리는 인간에게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교도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준비시키신다고 가르쳤다.’<sup>17)</sup>

1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2권 5장 9항. 399.

16) 정성우, *청교도 준비교리란 무엇인가?*, 마르투스, 2021, 44.

17) Joel R. Beeke & Paul Smalley,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 마르투스, 2018. 50.

## 2. 칼빈과 청교도의 연속성

청교도 회심 준비론과 관련하여 '준비주의'로 오해한 학자들은 청교도들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청교도들이 칼빈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불연속성을 주장하였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한다.

잉글랜드의 교회개혁 운동은 대륙 특히 독일에서 영주들의 결정에 힘입어서 주(州)의 종교적 색채가 분명하게 규정되었기에 위정자의 권한이라는 정치적 도구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교황권 지상주의(Ultramontanism)에 대한 반발로 국가만능주의(Erastianism) 사상을 선호한 군주들은 교회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을 앞세웠다. 이는 개혁가들과 세속 정치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개신교에 우호적이었음에도 감독교회의 교회수장권을 포기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1세의 종교정책으로 인하여 정치권력을 이용한 교회개혁의 불가능함을 인지한 청교도들은 16세기 후반부터 목회 활동을 통한 교회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세속 권력과 완전히 등을 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여전히 권력의 힘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절대군주의 힘에 막힌 그들은 결국은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내세워 제임스 1세 치하에서(1621년) 신대륙으로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 반면에 조국에 남아서 교회개혁을 하되 순수하게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청교도들도 존재하였으나 결국은 교회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렇더라도 목회 사역에서 그들이 강조한 것은 회중의 내적 변화였다. 여기에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으니 교회의 외적인 예식과 절차에 젖어있던 자들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심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심을 강조하는 이들의 눈에는 영국의 국교회 회원들이 비록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되레 불신자들이 더 많았다.

그리하여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역설한 것이다. 그것이 중생과 회심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열매로 경건 생활과 안식일 성수 및 가정에서의 신앙실천과 자녀교육을 힘써 외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교리와 삶의 일치운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갱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책임이 부각된 것이었다. 물론 이 책임 이행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중생한 자의 의지적 결단만으로 단행되는 것이 아님을 청교도들도 알고 있었다. 중생한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화의 길을 가게 한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결국 선포되는 말씀에 접목하고 반응하며 결심케 하는 과정 역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의지의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 은혜가 성도의 견인교리까지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은 다 언약 사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청교도들이 이해한 이 언약 사상은 김효남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전하면서도 인간을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상이다. 행위언약과 율법의 역할은 죄인을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제시함에서 율법의 기능을 배제한다면 은혜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거니는 길을 가게 한다. 여기에서 성화의 필요 충분 조건은 믿음과 회개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열매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은 정성우가 밝히듯이 '죄인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죄의 각성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이 악으로 가득함을 보



게 하시며, 죄에 짓눌려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시며 애통을 일으키시고, 지독한 자기 교만과 자신의 모든 존재가 무너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다.<sup>18)</sup> 믿음도 회개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퍼킨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는 누구도 자신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끌어안을 수 없기에 ...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다.'<sup>19)</sup>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어찌 칼빈의 교훈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칼빈의 글을 소개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우리 앞에 확실하게 제시해 놓으셨으나 우리의 사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뒷받침이 없이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달콤하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그의 자비는 더 사랑스러워가게 되는 것이다.(기독교강요 2.7.7).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아는 지식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곧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지탱되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들로 하여금 별거벗은 상태로 빈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피하여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 깊이 숨고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만 의와 공로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기독교강요 2.7.8).

칼빈은 이런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였다: '율법이 유익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를 움직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치유를 구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다.'(기독교강요 2.7.9.)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도덕법의 근본적인 역할은 양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되 자비와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이 생김이 없이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 증거들에 짓눌려 양심이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리하여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인하여 겸손과 자기 비하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의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싸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게로 돌아가며 그것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동시에 무언가 다른 데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기독교강요 2.8.3).

'우리가 죄를 미워함으로써-이것이 회개의 시작을 이룬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가운데서 탄식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당하며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가련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기독교강요 3권 3장 20항).

이상의 증거들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칼빈은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반드시 믿음보다 먼저여야 함을 가르친다고 볼만한 그 어떤 실마리도 없다는 것이다. 복음적인 회개에 해당하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일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수반하는 것은 복음적인

18) 정성우, *청교도 준비교리란 무엇인가?*, 마르투스, 2021, 39.

19) W. Perkins, *Works*, 1:84-85, 김효남의 글에서 인용한 것임.

회개임을(비록 이 둘은 경험상 불가분리일지라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로마가톨릭교회나 재세례파에서 참회의 실천적인 것들이 율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된 회개의 복음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지식에 의하여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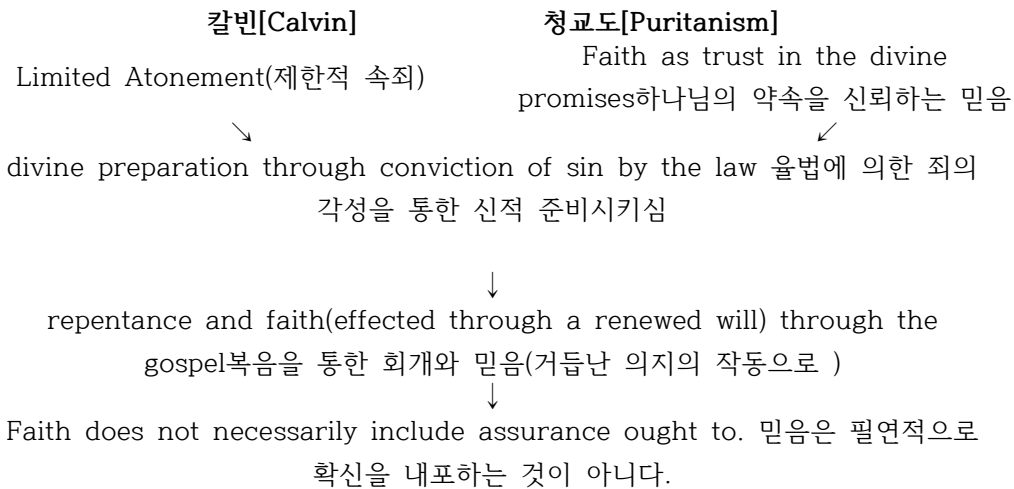
따라서 칼빈이나 청교도들은 도덕법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도 가르쳤다. 율법은 중생을 일으킬 수 없고 중생은 오직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의 중생케하는 역사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 도식화시키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다. 칼빈이나 청교도들 모두는 동일하게 도움이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갈 준비할 수 없으며 동시에 회심을 위하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도 가르쳤다. 그들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된 회개 곧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수반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칼빈이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교리적인 차이점은 없다. 그리스도는 택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어도 구원 얻는 믿음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동일하다. 칼빈에 의하면 본성적인 의지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다. 청교도들도 동의한다. 회심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 역시 둘 다 같은 입장이다. 구원 얻는 믿음과 참된 회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이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주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창 3:15, 사 42:6, 갈 3:21, 롬 3:20-21, 8:3). 이것을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다.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신다.'(WCF 7.3).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만이 그가 정하시고 열납하시는 때에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결심케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기에 가장 자유스럽게 나오는 것이다.'(WCF 10.1). 여기에 믿음을 조건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대요리문답 32번을 보자. '둘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둘째 언약(은혜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써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신다. 이 성령은 다른 모든 구원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죄인들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참된 것이라는 증거로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방편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에 나아가게 하신

다.’

이상의 문건 그 어디에도 그 조건이라든지 요구가 공로적인 조건이나 요구를 뜻하는 의미로 기술한 것이 없다. 요리문답에서도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심을 언급하고 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의 조건이다. 그것을 행위로 혹은 하나님과 거래 요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신칭의 교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이 없으면 칭의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칭의를 얻어내는 공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칭의를 얻게 하신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은 믿음을 칭의의 조건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편에서 할 의무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다. 믿음을 칭의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칭의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다. 선행도 구원의 공로적인 것이 아니다.

다음의 도표는 폴 헬름(Paul Helm) 교수가 그의 책에서 칼빈과 청교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한 것이다.<sup>20)</sup>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① 칼빈과 청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택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가르쳤다. 칼빈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오직 택자들만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가르쳤다는 증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
- ② 칼빈과 청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경험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물론 칼빈이나 청교도 누구도 확신이 없는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 ③ 칼빈과 청교도들은 전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회심은 율법을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준비적인 기간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 둘은 누구도 그것을 규정된 규범으로 간주하여 모든 기독교인이 순응해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20) Paul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 Banner of Truth, 1982, 72.

④ 칼빈과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를 설교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될 때 그의 의지는 신적인 은혜로 새롭게 되고 믿음과 회개는 그 결과라고 보았다.

⑤ 칼빈과 청교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누구도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공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준비한다거나 조건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을 베풀어주셔야만 하는 그 어떤 공로를 인간은 만들 수 없다.

이처럼 청교도들과 칼빈의 신학적 고리는 연속성이지만 불연속성은 없다. 도리어 칼빈의 가르침을 청교도들이 더 확고하게 정돈하였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학적 입장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죽어가는 영혼들, 잃은 양들을 찾는 일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사모한다.

### 3.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 대한 이해<sup>21)</sup>

청교도의 준비교리 혹은 회심 준비론은 그들이 이해한 언약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과정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받게 되는 복락이다. 은혜 언약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타락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된 인간은 영원한 정죄의 늪에 떨어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그 늪에서 나올 수 없기에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은혜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약속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그 약속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죄인이 기꺼이 믿게 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완전히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 은혜 언약은 죄인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구원의 서정은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김효남은 그의 논문에서 청교도의 준비교리와 이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언약에 머무르는 것,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와 지속적인 역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중생이나 회심은 전자의 영역이며

21)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은 조직신학에서 총 아홉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① 부르심: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롬8:30).
- ② 중생: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일으켜서 영혼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요 3:3-5).
- ③ 회심: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요일 1:9)
- ④ 신앙: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막 1:15).
- ⑤ 칭의: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롬 8:30).
- ⑥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 왕실 가족으로 전입시키는 행위(요 1:12).
- ⑦ 성화: 의롭게 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전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롬 8:14).
- ⑧ 성도의 견인: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 세상에서 단연코 구원의 최종 종착지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딤후 4:18).
- ⑨ 영화: 성도의 육체적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롬 8:30).

나머지는 구원 서정에 있어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구분하였다. 그렇게 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17세기 개혁파 신학에서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 18세기에 와서야 신학적 의미가 고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이 대체로 중생 혹은 회심에 대한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죄인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순간을 준비하는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 후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희생하여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빠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의한 은혜의 행위에서 믿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체험적 표지들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사상이나 바르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나 청교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과 관련하여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나 인간의 체험적 표지들과 관련된 구원의 서정은 레담교수가 지적한 것이 옳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처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의 요소들(유효적 소명, 칭의, 입양, 구원하는 믿음, 회개)는 그것의 계속 진행 중인 성취와 관계가 있는 다른 요소들(성화, 선행, 견인 구원의 확신)보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이다.’<sup>22)</sup>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서정 요소들 하나하나가 기계적으로 때를 맞춰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한 청교도들은 한 사람도 없다. 대요리 문답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은혜와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친교의 여러 측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에 대한 비판은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친 자신의 죄에 대한 확신과 찢림 그리고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하여 자아 외부에서 와야 할 구세주의 손길을 부여잡게 하는 죄인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인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청교도들은 준비교리가 ‘인간의 의지를 복돋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임을 결단코 망각한 자들이 아니다.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도자를 준비하셨고, 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 준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덕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만 얻어진다.

##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항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의 실체와 오해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율법의 용도와 전도 설교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다. 청교도들이 가르친 것과 칼빈의 교훈이 상반된 것이라든지 전자가 율법주의로 빠졌는지 하는 주장은 준비론을 ‘준비주의’로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은 철저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여 죄인의 각성을 일으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를 굳이 이론화하여서 규범으로 강조하게 될 때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규격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22) Robert Letham, 상계서, 417.

인지한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줄을 확고히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나 논리적으로나 타당한 교훈이다.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1577-1635)는 회심 준비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회심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준비시킨다. 이는 마치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우리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판다. 자연에서나 은혜의 관점에서나 준비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는 필요하다 사람의 본성과 부패 그리고 은혜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반드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상태로 사람이 나아갈 수 있기 전에 많은 분량(many degrees)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sup>23)</sup>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길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복음은 율법의 용도를 피해 가지 않는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복음은 오로지 택자 만을 위한 구원의 방도이다. 율법은 택자에게는 사랑의 계명이지 더 이상 정죄의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적인 은혜의 교리를 굳게 붙든 청교도들은 칼빈의 후예들로서 구원을 위한 인간의 그 어떤 공로적 행위를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개혁주의 정통신앙 선상에 서 있는 자들이다. 모두가 다 일관된 입장은 아니었을지라도 대체로 인간의 책임 영역조차도 은혜의 언약 속에서 구현되는 것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차제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견지하는 자들의 적은 자유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이들이지 청교도가 아니다. 피아(彼我)를 잘 구분하여 기록된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의 교훈으로 잣대를 삼아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확고하게 표명하는 교단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

23) Richard Sibbes, *Works*, 6권 522. 번역물은 김효남 박사의 글에서 발췌한 것임.